

전인지 프로데뷔 첫 연장전 웃었다

KDB대우증권클래식 12언더파 우승

김하늘과 엄치락뒤치락 치열한 선두 경쟁 연장 첫홀 파파트로 3개월 만에 시즌 2승 총상금 4억3770만원 상금랭킹 5위 경중

전인지(20·하이트)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DB대우증권클래식(총상금 6억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인지는 28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김하늘(26·비씨카드)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6월 에쓰오일 챔피언십에 이어 3개월 만에 시즌 2승째를 신고했다. 우승상금 1억2000만원에 추가해 총상금 4억3770만원으로 상금랭킹 5위로 올라섰다.

준우승을 차지한 김하늘도 상금 4억원

(4억902만원)을 넘겨 올 시즌 KLPGA 투어에서 상금 4억원을 돌파한 선수는 모두 7명이 됐다. 공동 5위로 경기를 끝낸 김효주(18·롯데)는 부동의 상금랭킹 1위(8억4016만원)를 지켰다.

2라운드까지 9언더파 135타를 쳐 단독선두로 나섰던 전인지는 이날 김하늘의 반격에 우승을 확신할 수 없었다. 김하늘의 기세가 대단했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김하늘은 8번홀까지 버디만 5개를 잡아내며 역전에 성공했다. 전인지는 전반에 2타밖에 줄이지 못해 2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김하늘이 이후 보기와 버디를 2개씩 기록하며 타수를 줄이지 못한 가운데 전인지는 10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다시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더 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18번홀(파4)에서 펼쳐진 연장 첫 번째 경기에서 전인지는 파를 잡아 승리했다. 김하늘은 페어웨이에서 친 2번째 샷이 그린 앞에 떨어졌다가 워터해

저드로 빠지면서 우승을 내줬다. 1번타를 받고 4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라온 김하늘은 보기 퍼트마저 놓쳤다. 전인지는 2m 거리의 파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했다.

전인지는 "프로 데뷔 이후 처음 치른 연장전이었는데, 떨리기보다 살짝 설레었다"며 "사실 이번 대회 전까지 우승에 욕심을 내다보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대회 시작 전 '이번에는 즐겁게 치자'고 마음먹었는데, 그대로 된 것 같다"고 기뻐했다.

김하늘은 다시 한번 준우승 징크스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현대차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을 시작으로 두산 챔피언십, E1 챔피언십, E1 챔피언십, YTN 불빛여자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5차례 준우승했다.

8월 한화금융클래식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국내대회에 출전한 최나연(27·SK텔레콤)은 합계 6언더파 210타, 공동 6위를 기록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전인지가 28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KLPGA 투어 KDB대우증권클래식에서 연장 접전 끝에 김하늘을 누르고 우승했다. 시즌 2승째를 거둔 전인지는 상금랭킹 5위로 올라섰다. 사진제공 | KLPGA

강수일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포항, 전북과 2-2 무승부



(28R 경기종합)

포항 스틸러스 강수일(27)이 경기 종료 직전 팀을 패배에서 구했다.

강수일은 28일 스틸야드에서 벌어진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28라운드 전북현대와의 홈경기에서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전금의 동점골을 터뜨려 팀의 2-2 무

승부를 이끌었다. 2위 포항(15승6무7패·승점 51)은 극적으로 승점 1을 챙겨 1위 전북(15승8무5패·승점 53)과의 간격을 유지했다.

전반 42분 프리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준 포항은 후반 14분 유창현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32분 전북 김동찬에게 다시 골을 허용해 패색이 짙었던 포항은 후반 추가시간으로 주어진 5분이 거의 다 흘러갔을 무렵 강수일의 극적인 동점골로 기사회생

했다. 강수일은 유창현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이날 1골·1도움으로 포항의 공격을 지휘했다.

전북은 2-1로 앞서 후반 추가시간에 결정적 득점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한 직후 동점골을 내줘 포항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광양에서 벌어진 6위 전남 드래곤즈와 7위 울산현대의 맞대결도 1-1 무승부로 끝났다.

홈팀 전남은 전반 21분 용병 스테보의 선제골로 앞서나갔지만, 후반 10분 울산 고창현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두 팀은 이후 일일일터의 공방을 펼쳤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스테보는 득점랭킹 5위(9골)로 점프했다.

한편 27일 경기에서 3위 수원삼성이 상주 상무를 1-0으로 누르고 14승8무6패, 승점 50으로 전북과 포항을 바짝 추격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제주 유나이티드에 2-0으로 이겼고, 부산 아이파크는 성남FC를 1-0으로 눌렀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리버풀 미드필더 조던 헨더슨(왼쪽)이 27일(한국시간) 안필드에서 벌어진 에버턴과의 2014~2015시즌 첫 '머지사이드 더비' 홈경기 도중 상대 공격수 케빈 미랄라스에게 태클을 걸고 있다. 리버풀(영국) | AP뉴시스

제라드 "머지사이드 더비 골 맛이 가장 짜릿"

통신원 수첩

프리킥 선제골...리버풀, 에버턴과 무승부

27일(한국시간) 리버풀 안필드에서 벌어진 리버풀-에버턴의 통산 223번째 '머지사이드 더비'는 뜨거웠다. 후반 20분 리버풀 주장 스티븐 제라드의 프리킥 선제골이 터졌을 때만 해도 홈팀의 승리가 유력해보였지만, 종료 직전 에버턴 필 자기엘라의 중거리포가 골망을 흔들면서 1-1로 끝났다.

놀라운 것은 압표 가격. 적게는 200파운드(약 34만원)에서 많게는 500파운드(약 85만원)까지 치솟았다. 리버풀 홈경기 티켓은 시즌 티켓을 제외하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한꺼번에 판매하기 때문에, 입장권을 가장 구

하기 어려운 축에 속한다.

그러나 리버풀의 분위기는 장외와는 판이했다. 경기 전 마마두 사코가 자신의 출전명단 제외에 반발해 홀로 경기장을 떠나는 장면이 팬들에게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사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했다. 실망을 끼쳐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파장은 가시지 않고 있다. 출전명단에 없는 선수들도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잉글랜드 축구의 전통인데, 사코가 이를 깬 것이다.

1894년 10월 시작된 머지사이드 더비는 리버풀을 연고로 한 두 팀 팬들 간의 존중이 돋보이는데, 가족과 친지라도 응원하는 쪽이 같리는 경우가 많아 현지에선 '착한 더비', '친선 더비'라는 닉네임으로 불린다. 에버턴전 통산 10호골을 뽑은 제라드는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골 맛을 볼 때가 가장 짜릿하다"고 털어놓았다.

영국의 수도에서도 치열한 한 판이 펼쳐졌다. 아스널-토트넘의 '북런던 더비'였다. 1909년 시작된 이 더비는 28일 아스널의 안방 에미리츠스타디움에서 열렸다. 통산 174번째 승부에서도 쉽게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후반 11분 토트넘 나세르 샤흐라가 첫 골을 뽑았지만, 29분 아스널 옥슬레이드 체임벌린이 동점골을 터뜨렸다.

아쉬운 쪽은 69%의 볼 점유율을 기록한 아스널이었다. 16개의 슈트로 6회에 그친 토트넘을 압도했다. 그러나 상처만 얻었다. 애런 램지와 미켈 아르테타가 부상을 입었다. 아스널 아르센 웅크 감독은 크게 분노했다. "토트넘은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을 했다"며 공개 비난했다. 이에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우리 수비가 강했으면"이라며 일축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손흥민, SC프라이부르크 원정 폴타임 소화
레버쿠젠 손흥민(22)이 27일(한국시간)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SC프라이부르크와의 2014~201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폴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팀도 0-0으로 비겼다.

기성용, 선덜랜드전 선발 출전 0-0 무승부
스완지시티 기성용(25)이 27일(한국시간)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선덜랜드와의 2014~201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폴타임을 뛰었다. 팀은 0-0 무승부에 그쳤다. 챔피언십(2부 리그)의 이창용(26·북런던)은 더비카운티전에 선발 출전에 후반 20분까지 65분을 소화했다. 팀은 0-2로 완패했다.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팬택 손 또 들어준 법원

체육복표사업 새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 가속 전망

표류하던 체육진흥투표개발행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포토)의 새 수탁사업자 선정 작업은 지금부터라도 순항할 수 있을까.

법원이 재차 '팬택&이전소사업(해피스포츠포토사업)'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체육복표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이 새 우선협상대상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 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인일이 너무 지체된 게 사실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상, 팬택측과 수탁사업자 선정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조달청에 팬택측과의 협상 및 계약절차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채무자 대한민국(서울지방법조달청)과 보조참가자 웹케시컨소시엄이 채권자(㈜유니온(팬택&이전소사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판결을 내렸다. 7월 15일 팬택&이전소사업이 낸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조달청과 웹케시컨에서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팬택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이번 판결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예고했던 공단이 팬택측과 새 수탁사업자 선정에 관한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조달청 조달청에 전달했지만, 입찰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조달청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조달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주도로 진행된 입찰 과정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조달청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또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실상 계약 협상을 마친 웹케시컨도 본안 소송 등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공단과 팬택측의 협상이 공단의 바람대로 곧 시작된다 해도 2주 이상의 협상기간이 필요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팬택측은 기존 수탁사업자인 오리온과 40일 가까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오리온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스포츠포토 사업을 대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공단과 오리온은 추가 계약을 10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

류현진 오늘 전력투구 점검

통증·불편 없으면 시뮬레이션 피칭 단계 돌입



LA 다저스 류현진(사진)이 차츰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13일(이하 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에서 어깨통증을 이유로 조기방관한 뒤 재활에 들어간 류현진이 순조롭게 피칭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류현진은 27일 어깨부상 이후 처음으로 불펜피칭을 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켄 거니 기자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27일 불펜 투구를 한 류현진의 상태가 괜찮다. 29일 불펜 피칭 때는 전력투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해 한숨을 돌렸지만 중부지구 1위 팀과 중요한 디비전시리즈를 앞둔 돈 매닝리 감독은 류현진의 어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류현진이 하나의 허물을 넘을 때마다 더 큰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거니 기자는 트위터에 매닝리 감독의 말을 전하면서 류현진이 차츰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렸다.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 때 시즌 2번째로 어깨에 문제가 생긴 류현진은 그동안 팀 의료진의 집중관리 속에 재활을 꾸준히 해 왔다. 주사를 맞으며 통증을 완화했고 가벼운 캐치볼을 하며 어깨의 상태를 점검해왔다.

피칭훈련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류현진은 27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앞서 처음 불펜피칭을 했다. 포수가 서서 10개를 받았고 앉아서 20개를 던졌다. 29일 전력투구를 한 뒤 어깨에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한다. 투수에게 중요한 것은 전력피칭 다음 날이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시뮬레이션 피칭(경기 상황을 가정해서 던지는 피칭)을 하고 경기 준비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불펜 피칭 때는 가볍게 던지며 어깨의 상태를 점검했고 변화구도 간간이 던지며 피칭 감각을 조율했다. 29일에는 전력으로 던지며 어깨가 새로운 부담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저스는 10월 4~5일 벌어지는 디비전시리즈에 클레이턴 커쇼와 잭 그레인키를 내세울 것이 확실하다. 7월 3차전 원정경기가 류현진의 몫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ion

오승환 38S...일본프로야구 외국인 최다 40S 도전

한신 타이거즈의 오승환(32)이 일본 진출 첫해 '스승' 선동열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오승환은 27일 열린 야구르트전에서 2대1로 앞선 9회 구원등판, 최고 151km의 강속구를 앞세워 1이닝 탈삼진 1개 포함 무실점으로 막았다. 이날 승리로 오승환은 시즌 38세이브를 기록해 선동열 감독이 1997년 일본 주니치 드래건즈 시절 세운 기록과 타이틀을 이루었다. 오승환은 이날 무실점 세이브로 방어율도 1.89로 낮췄다. 이번 세이브로 사실상 구원왕을 확정지은 오승환은 일본 프로야구 외국인선수로서는 2008년 마크 크론 이후 두 번째로 40세이브 신화에 도전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kobakuid